



# 석유정보세미나



▲이날 세미나에는 장현준, 예경연원장이 사회를 담당한 가운데, 산업자원부 구본용 석유가스심의관, 강주명 서울대학교수, 이복재 예경연 책임연구위원 등 3명의 주제발표인사와 이보길 KBS해설위원, 김태유 서울대학교수, 정동운SK(주) 상무이사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했다. (사진 좌로부터)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중심으로한 산유국들이 유가부양을 위해 하루 2백 10만배럴규모의 산유량 감축에 나서는 등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석유세미나가 한국 석유공사 주관으로 개최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24일 석유공사 1층 대강당에서 산업자원부, 학계, 업계, 언론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천년 국내 석유산업의 위기와 도전'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具本龍  
산자부 석유가스심의관

## 21세기 석유산업의 비전과 정부정책방향

###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경제전반의 구조조정과 함께 석유산업에도 자유화·개방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정유업체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구조 효율화를 도모하고 정유사의 재무구조개선 등 기업건실화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산유국 등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 자본조달 비용의 절감과 원유조달능력 제고.

### 석유유통 산업구조의 효율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98년 5월부터 대외개방된 석유유통부문에 대해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등 유통단계별 기능을 재정립하여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둔다. 석유대리점은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본래의 도매기능외에 정유회사의 판매관리회사·수출입회사·수송전문회사 등으로의 변환을 모색하고 주유소의 경우 경영다각화를 위해 유틸리티의 부가가치상품의 판매 및 현대적 경영기법 도입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

### 석유산업의 지식·정보집약 산업화

지식주도경제로의 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의 공급능력 확충 및 유가통제를 통한 수급안정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규제완화, 경쟁축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정책 수행. 이를위해 석유업계는 기술개발투자확대, 정제시설의 고도화, 물류효율화, 정보화, 관련서비스 공급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을 통해 종래의 장치산업에서 지식집약화

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현재 개발, 운용중에 있는 석유정보시스템(Petronet)의 DB를 확장하고 외국 석유관련 DB업체들과 상호 연계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특히 정보화의 인프라구축과 석유현물거래 여건이 구비되면 석유의 전자상거래 시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효율적인 석유 물류관리 및 물류 공동화

석유수송시 송유관이용률을 98년의 35%에서 오는 2005년에는 66%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한편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석유제품의 흐름과 정보를 온라인리얼타임화하여 '판매-수송-저유-생산'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인 온라인망을 구축하여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 이와함께 정유사간 저유소, 수송수단을 공동이용하고 원유도입 및 제품 수출입시에도 정유사간 수송장비를 공동활용하는 방안과 정유회사의 수송설비들을 통합시켜 수송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개별 저유소를 통합하는 방법을 통해 저유전문회사화 함으로써 수송수단과 설비의 공동이용체를 구축한다.

### 석유의 환경 친화성 제고

기후변화협약등 가시화되고 있는 국제적·국내적 환경규제에 대응한 정책대응 및 기술개발, 시설투자 등이 정부·기업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마련돼 나가야 할것임. 정부차원에서는 환경규제의 산업영향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환경규제의 기준을 정한 다음, 국내적으로는 이를 실천해 나가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실리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기업차원에서는 고도화시설의 확충, 석유품질 향상, 오염방지기술의 개발·도입 등 환경친화형 생산 및 경영의 조기실현을 도모해 나간다.■



▲ 姜周明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

## 우리나라 석유개발사업의 진단과 발전방향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한 국가경제개발정책의 추진으로 석유소비량이 일일 220만배럴을 상회하고 석유소비량이 세계 6위권인 고도의 산업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안전한 석유공급원 확보를 위한 국내의 유전개발사업과 석유비축사업은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되는 기반사업이며 이에 맞추어 그동안 석유공사가 국내의 석유개발사업과 석유비축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석유공사가 그동안 추진해온 석유개발사업부문에 있어 미진했던 점을 지적한다면 △공사 설립 초기의 안정적 국가에너지원 확보라는 창립의지와는 사뭇 거리가 있는 단순 개발기금관리위주의 경영 △석유 및 천연가스개발사업이 요구하는 고도의 기술력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결여 △고위험, 고수익사업인 탐사위주 사업에 편중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석유개발사업의 특성인 기존 개발지역의 각종 개발관련자료에 대한 철저한 역학적 조사에 근거하지 못한 경영우선적인 개발일정 추진에 따른 성급한 사업수행과 함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부족 및 홍보 정책부재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에대한 상대적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우선 일본석유공사(JNOC)산하에

정부의 통상적인 회계처리규정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체 성격으로서 석유개발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일본석유개발회사(JAPEC)가 있으며 사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력을 개발, 지원하는 기술연구센터(TRC), 제반 석유사업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대상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일본석유정보센터드므로 구성돼 있다.

또한 스페인 국영석유개발공사(REPSOL)의 경우는 고위험(high risk)의 탐사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개발 및 생산사업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 단기간에 이 업종에서 매장량 확보 세계 14위로 급부상한 성과를 거둔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사안들을 종합, 석유공사의 구조와 역할 정립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먼저 사업성격

사으로 민간석유회사와 석유공사(KNOC)간의 적정한 업무분담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대륙붕 사업과 생산광구매입 등은 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국내 석유개발 기술력

축적 측면에서 석유공사 주도하에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내의 열악한 기술여건하에서 석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 산재해 있는 기술력을 석유공사를 주축으로 상호 체계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총체적인 기술인력 매트릭스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석유개발 연구·개발 분야의 위촉된 분위기를 쇄신할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인력 확보 및 연구개발 정책지원도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현안사항이라 판단된다.■

### 민간석유와 석유공사간 업무분담 필요 체계적 정보 교환, 기술인력 시스템 시급



▲ 李 福  
에경연 책임연구위원

## 전환기 한국석유산업의 진로

한국의 석유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전환기에 처해 있다. 우선 국제석유시장 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세계 석유수요증가세의 현격한 둔화로 상당기간 동안 저유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

한 저유가 상황에서 국제적인 석유회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병 내지는 전략적인 제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석유회사들간 합병의 대표적인 예로 BP-Amoco사간 합병과 Exxon Mobil의 합병을 들수

### 석유개발·비축사업 적극 추진 필요 주요 산유국과

### 협력강화 안정성 확보해야

있다. 석유회사들간 전략적인 제휴로는 미국 석유시장 하류부분에서의 Shell-Exxon-Aramco간의 제휴가 그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국내석유시장의 구조도 크게 전환돼 가는 추세로 있는데 특히 정유부문에 있어서 회사들간 합병이 추진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입전문회사의 등장은 국내 유통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잉여 정제시설은 국내정유회사로 하여금 석유제품의 수출을 적극추진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유통부문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기도 하다.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석유개발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절실히 요청된다. 석유 제품의 세전공장도가격에서 원유도입 비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원유의 개발·도입은 실로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에더하여 국내정유사들은 인근국가들의 정유 부문에 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국가들의 유통부문에 진출하여야 한다.

취약한 국제석유시장의 구조에 대응하고 석유공급의 안정성확보를 위해서는 석유개발사업과 함께 석유비축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주요 산유국 특히 중동지역 산유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석유회사(정유사)들이 기술개발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하여야 할것이다.

석유제품을 이용하여 에너지서비스를 생산하는 제반 기기들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와함께 석유제품의 사용이 환경오염물질(온실가스인 CO2등)의 배출과 무관하게 되는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에너지경제단신

전국LP가스총전소  
매출액40~50억원  
전체 12.7% 차지

전국외 LP가스총전소중 연간 매출액이 40~50억원 규모인 곳이 전체 총전소의 12.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40~50억원 인 총전소가 조사대상 5백 82개소중 74개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40억원은 72개소(12.4%), 50~70억원 은 71개소(12.2%), 3~5억 원은 525개소(8.9%)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1백 억원이 넘는 곳도 25개소 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밝혔다.

중소 Y2K무료사업  
중소기업청 진출공단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Y2K 문제해결을 위해 무료로 컨설팅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업체에는 Y2K 전문가를 파견하며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준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 Y2K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면 사실과 소프트웨어 구입자금도 지원한다. Y2K 문제해결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정보화지원과(042-481-4401)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Y2K 진담팀(0345-496-1471)으로 하면 된다.